논어 7편 술이 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述而不作，信而好古，竊比於我老彭。」

독음 · 자왈 술이부작 신이호고 절비어아로팽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새로 지어내기보다 옛 가르침을 전하고,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述 이을 술 술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作 지을 작 작 / 信 믿을 신 신 / 好 좋을 호

古 옛 고 고 / 竊 좀도둑 절 절 / 比 견줄 비 비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我 자기 아 아 / 老 늙은이 로 로 / 彭 성씨 팽 팽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